발행처 : 복음과기도 미디어 ☎ 070-7417-0408~10, Fax 032-881-0411

제35호 2012. 1. 29 ~ 2012. 2. 11 (창간일 2010. 10. 3)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악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란-서방 "핵 갈등" 위험 수위 최고조

미·EU, "이란 제재" 필요성 역설 … 이란, "제국주의 집단에 굴복 안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10:4)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에도 이란이 새롭게 우라늄 농축에 나서면서 이란과 서방국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습 가능성'을 연일 거론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강경 목소리를 내며 이란 제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미국 정부는 군사력을 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장은 이웃 중동 국가들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테러 그룹들에까지 핵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추가 제재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독일도 "이란 쪽에서 행동하지 않는 이상 강한 제재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재하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우방국에
이란 제재 동참 요청
일. EU 등 지지 의사 표명

중국·러시아, 우려표명에도 불구
석유 금수 등
대이란 추가 제재 반대

그러나 서방의 압력에도 이란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국영TV를 통한 연설에서 "제국주의자 집단에서 제재를 동원해 이란 정부와 국민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이란은 스스로 선택한 길로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 핵과학자 암살 테러 발생 이후 배후로 즉각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하며 이란과 서방의 대치 양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란의 카자에 대사는 이번 암살 사건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유엔이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정 외국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며 "이런 테러행위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테러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란에서 발생한 어떤 폭력사태에도 미국은 분명히 관련돼 있지 않다"며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고, 이스라엘도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미국은 우방에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일본을 찾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을 만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본은 미국의 이란 제재 방침에 맞춰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이란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석유 금수를 비롯한 대이란 추가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출처:연합뉴스 = 종합).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사야40:15,18)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치 않으려는 이란의 완고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핵무기가 인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역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그것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그 위에 서려하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속이며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하는 사단의 궤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이란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군사력과 힘을 모으며 동일하게 악을 저지르는 서방나라들 또한 주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되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 앞에 각자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빛을 온 땅에 비추셔서 속히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주의 뜻 앞에 순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되신 주만 송축합니다. [기도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기획
- 제2기 왕의친구학교
"저는 복음을 만나야 해요"

▶인터뷰
- '하나님 나라의 씨앗'
개그우먼 신보라 자매

김용의 선교사 컬럼

“성령님의 목적은 정확히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절망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비전을 목도(目睹)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완성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물줄기는 지극히 적었지만 곧 큰 강을 이루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소성합니다. 생명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급기야 성전의 물줄기는 대양으로 흘러 온 바다, 온 세상을 뒤덮는 영광스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성전 하나가 세워지는 것, 한 개인의 심령 안에 복음이 회복 되는 것은 우리 눈에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 13:31)

하나님은 이 영광을 복음 안에 담아놓으시고 에스겔에게 측량하라 명하십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이후 이것을 아는 단계만 해도 감격하기에 충분했으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빗나가면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복음이 점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충만케 하는 데까지 이르길 원하십니다.

달리 살수는 없는데 힘 있게 복음으로 달려가지 못하진 않으십니까? 사단의 장난인 줄 알면서 떨치고 달려 나갈 활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며,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갈등과 고민만 한 채 결론 내리지 못하거나 자만한 경우입니다.

삶의 불편을 겪지 않고, 복음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가 만나면 반드시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는 삶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면서 죄 사함, 거룩한 삶, 보람 있는 인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이 스스로 만족해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회개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엡 3:20)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고작 자신의 삶과 얽매인 문제를 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음에도 자기 수준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열매에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그것에 신경을 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보장과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없이 신학 교리나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내고 율법을 지켜는 보지만 곧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사셔서 이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게 하시고 우리로 영을 좇아 행하게 할 능력을 주십니다.

부르심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데까지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또 내 가정과 교회만 복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열방이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자아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복음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수준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일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며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주를 사랑하도록 인도 하십니다. 매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눈에 보이는 성공에 멈추지 말고, 충만에서 충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시다.-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 떡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

로마 / 초기 그리스도인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5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렸소. 그러나 그럼으로써 씨를 뿌렸소. 그 씨앗이 땅에서 돋아나 크게 자랄 것이오!”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로마 당국자들의 야만적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외쳤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고 불구가 되고 불에 태워지고 살해됐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신자들은 남아 있는 신자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뒤로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묘사한 그대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판사와 당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니 재판관이여, 정의(正義)를 가장한 불의(不義)의 연극을 계속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킬 때마다 사람들 눈에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비쳐질 것이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고문하시오! 처형하시오!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드시오! 당신의 불의는 우리의 순결함을 입증하는 빛나는 증거가 될 것이오. 당신이 불의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오.”

“극악한 길을 계속 가시오!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기 위한 도구들을 계속 만드시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켜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게 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오. 우리를 살육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일어날 것이오!”

이 말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 메시지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박해를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교회는 새로운 식구들을 더해가며 불굴의 용기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 박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감소시키려는 본래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신자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영혼의 들판을 두루 다니는 적대자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거인으로 여길 수도 있고, 두려움의 모조 이미지에 불과한 단순한 허수아비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은 추수 들판으로 뛰어 들어가 그리스도를 위해 힘써 일하겠는가?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刊)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쓰레기더미 위에서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다

케냐의 쓰레기더미 마을 고로고초를 방문하다

세계 3대 슬럼가 중 하나로 불리는 케냐 나이로비의 고로고초 마을. 이곳은 쓰레기더미 마을이다. 쓰레기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생계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시커먼 날개를 퍼덕이며 부리를 쓰레기에 박은 굶주린 새(사진 왼쪽의 검은 물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쓰레기더미 위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찾아다닌다. 혹시나 다른 이들에게 쓸 만한 쓰레기들을 뺏길까봐 쓰레기장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언젠가부터 이곳 쓰레기더미 위에서는 찾아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우리 일행도 고로고초에 도착해 쓰레기더미 위에 자리를 마련하고 소망 없이 쓰레기를 뒤지는 이곳 사람들을 초대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미 값없이 주어졌다는 진리를 고로고초 온 땅에 선포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하루를 살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완전한 복음이 이들의 심비(心碑)에 새겨지기까지 하늘 아버지는 쉬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1:30)

- 사진제공 : WMM (케냐 '오직사랑'팀)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를 탄핵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이 회개요, 믿음이다."

완전한 절망 이후'복음의 문'열려 … 제자훈련원 통해 5만명 이상에게 복음 전파

송신호 목사
(한국제자훈련원)

"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내 죽음'이 되어야 …

뇌막염으로 죽음 목전에서 땅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

일에 헌신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라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신다

"

이 글은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지난 2011년 12월 13~16일까지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죄가 세상에 들어 왔을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제물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나와 직접 관계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롭게 되고,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배신이요, 반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반역을 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싶었지만 모든 사역의 주체가 나 자신이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를 높였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망하게 하셨다. 망하고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역하고 사업하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고 하셨다. 열정은 있었는데 속사람이 안 변했으니 내가 주인이었다. 내가 죽어야 했다. 갈2:20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한다고 선언하신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피해가지 말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 '내 죽음'이 되어야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주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끝이 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했다.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다. 뇌막염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 경험 이후부터는 땅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하였고, 한 생명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제자훈련원'을 통해 광고 한 번 없이 5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님이 하셨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사역을 통해 나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빚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이제 내 안에 완성하실 복음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산다. 지금 온 몸이 마비되는 희귀병(루게릭병, 편집자주)을 앓고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는다. 한국제자훈련원은, 나 없어도 된다.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지 내 사역이 아니다. 팀으로 하는 사역이지 개인 사역이 아니다.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다. 죽었다고 패배가 아니다. 건강해 지면 하나님이 하셨고,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인가? 이미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객관적인 실제적 사실이다. 객관적인 복음이다. 이제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나를 탄핵하고, 나를 죽음에 넘겨야 한다. 이것이 회개요, 믿음이다. 옛 자아가 고개를 쳐들 때마다 죽었다고 믿고 거절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권세는 여기는 것이다(롬6:11).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다. 그 분이 내 주인이 되셨다. 이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사역은 위대한 것이다. 하지만 일에 헌신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1면에 이어 -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페르시아의 영광이 서린 곳

면적 164만㎢(16.6배)
인구 7천507만 (1.5배)
도시화 69.5%
종족 이란계 메디아인 67.9%, 투르크족 25.9%, 아랍인 2.3%, 남아시아인 2.3%
종교 이슬람교 98.6%, 기독교 0.5%, 바하이교 0.4%, 무종교 0.3%, 기타 0.2%
* ( )은 대한민국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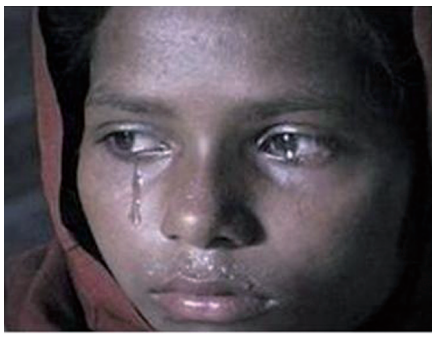
〈출처: Operation World 2010〉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선교브리핑

소말리아, 개종한 기독교인 여성을 채찍질

무장단체 알 샤바압, 케냐 분리 위해 사회 갈등 유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소말리아 여성이 지난해 말 '외국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무장단체에 납치돼 채찍 형을 받았다고 콤파스다이렉트뉴스(CDN)가 최근 전했다.

지난 2011년 11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약 200킬로 떨어진 쟈날레 시에 사는 소피아 오스만(28)은 4년 전 기독교인이 된 후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알 샤바압 대원들에 의해 강제로 붙잡혔다. 그녀는 지난 12월 22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40대의 채찍질을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격자에 의하면 소피아는 피를 흘렸으며 정신을 잃었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했고,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무장단체 알 샤바압은 알 카에다와 연계된 단체로, 최근 소말리아 남부에서 국경을 넘어 케냐에 침입해 관광객들과 구호요원들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케냐가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 종교단체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만들고, 특히 케냐 북부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 2011년 베스트셀러 '성경'이 차지

노르웨이 성서공회, 지난해 연쇄테러 등 사회현상의 영향"관측"

기독교세가 날로 약화돼가는 노르웨이의 2011년 베스트셀러가 놀랍게도 성경이 차지했다고 최근 영국 일간신문 더가디안(The guradian)은 밝혔다.

더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성서공회가 지난해 10월, 30년 만에 번역한 노르웨이어 성경 약 8만권이 팔려 매주 전국의 책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 신문은 성경이 모두 판매되고 동이 나면서 일부 구입 희망자들은 성서공회 앞에서 성경책 구입을 위해 노숙하면서 대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총 490만명인 노르웨이 인구 중 80%는 노르웨이 교회에 소속돼 있으나 성경 구입자 모두가 신자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서공회측은 "지난해 여름 오슬로시와 우퇴야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이 이번 기록적인 판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획 - 왕의친구학교

"저는 복음을 만나야 해요"… 무엇을 본 어린이의 고백일까?

입술의 고백이 바뀐 어린이 보며 부모들, 충격과 감격의 눈물
제2기「왕의친구학교」, 8~14세 어린이 80명 참가…은혜중 성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4-15)

겨울방학 시즌. 이불 속에서 TV보기와 게임만 즐기던 14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변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아끼던 닌텐도 게임기를 '필요 없다.'며 동생에게 주는 아이. 늘 귀찮아하던 동생들을 일일이 챙기며 씻겨주기까지 하는 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투덜거리던 입술에서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 아이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부모님들은 충격과 감격으로 몸둘 바를 몰랐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이 이 아이들을 변하게 만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기도시간에 대표기도를 통해 '저는 이제 주님으로 충분해요'라고 기도할 때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아 다리가 다 후들거렸어요." 이번 왕의친구학교를 다녀온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집사님은 아이의 변화된 모습에 계속 감격해했다.

다음세대들을 진리로 세워가는 '제2기 왕의친구학교'가 2012년 새해 시작과 함께 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호산나교회(담임 정명식 목사)에서 열렸다. 8세부터 14세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학교는 훈련생 80명과 섬김이 30명으로 시작돼 복음과 함께 먹고, 복음과 함께 자며, 복음과 함께 한 운명이 된 2주간의 시간을 보냈다.

첫 주간은 렉쳐(lecture.강의)기간으로 묵상, 복음 스터디, 강의, 말씀기도, 느헤미야 52 기도, 선교박물관 관람, 땅밟기 기도 등 어른들도 소화하기 힘들만큼 팍팍한 일정을 아이들은 전심으로 참여했다. 복음 스터디와 강의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생활, 관계, 예배, 기도 등 전 영역을 통해 발견하며 선포된 진리가 자신에게 적용되기까지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기간은 왕의친구학교 선생님들의 조건 없는 섬김도 빛났다. 아이들 3명이 1조로 구성 되었는데 해당되는 아이들을

"전, 이제 게임기 필요없어요. 동생에게 주세요"

"전도를 거절할 땐 어린이와 교사 함께 그 영혼 위해 통곡하며 기도"

돌보고, 선포된 진리가 적용되기까지 세밀하게 중보하며 주방, 차량, 청소 등 모든 영역을 전심을 섬기며 함께 복음 앞에 섰다.

두 번째 주간은 아웃리치 기간으로 정해 8개 팀을 구성, 3일은 선생님의 지도로 일정을 진행했다. 나머지 3일간은 학생 중 한 명이 조장이 되어 16개의 영남 지역을 누비는 행복한 행진을 이어갔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물으며 서로간의 순종과 섬김을 배웠다. 이 시간 동안 때로는 3~4시간을 계속 걷기도 하고, 때로는 수차례 쉴 장소를 허락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각 팀은 정착 교회에서 '느헤미야52일 기도' 정보 책인 '복음과 영적전쟁'으로 24시간 연합 기도 시간을 가졌고, 특히 새벽 시간을 어린이들이 파수하며 자발적으로 기도 인도를 하는 등 왕의 친구답게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워갔다.

왕의친구학교 이틀째, 선교박물관을 견학하고 대구제일교회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이 학교를 섬긴 이종희 선교사(순회선교단 다음세대팀)는 "팀마다 상황과 조건은 달랐지만 아웃리치 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에 팀원 전체가 통곡하며 기도를 하기도 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은 은혜가 폭포수 같이 내려지는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죄된 습관을 고칠 수 없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저는 복음을 만나야 해요"라며 복음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왕의친구학교는 모든 아웃리치를 마친 후 마지막 순서로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고 하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살 것을 결단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각자의 집으로 파송되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왕의친구들의 행진을 기대해본다.

"저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집에 돌아가도 학교에서처럼 묵상하고 기도할 거예요"
왕의친구학교 수료생 어린이들의 고백 … 회개와 결단, 믿음의 선포 이어져

다음은 훈련생으로 참여한 왕의친구 어린이들의 고백이다.〈편집자〉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거처를 예비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짜증내지 않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수준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왕의친구학교에서는 정말 재미있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전심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 훈련생 A

앞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왕의친구학교에서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야겠다.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 - 훈련생 B

'아! 내 죄악이 사라졌구나' 알게 됐다

"산에 올라갔을 때 무지무지 힘들고 나무 막대기 들고 낑낑거리며 올라가고 땀이 뻘뻘 났으나 높은 산에서 말씀 기도하며 너무 기뻤다. 그런데 동생들이 까불었을 때 눈물도 났고 화도 났다. 아이들과 싸웠을 때 다 포기하고 싶었고, 믿음 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자꾸 화만 났는데 "다 이루었다"하신 말씀에 "아! 내 죄악이 다 사라졌구나!"하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몸살이 나서 힘들었지만 끝까지 괴롭히는 사단을 십자가로 파하고 그 사단이 육체를 아무리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훈련생 C

이제 엄마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번 왕의친구학교에서 결단할 것과 실천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순종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난 예전에 엄마의 잔소리에 찌들었다. 그때마다 말대꾸를 했는데 이젠 엄마의 말에 순종하여 잔소리, 말대꾸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려야겠다." - 훈련생 D

집에 가서도 묵상하고 기도할 것

"이 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하면 막다른 길이고 잘못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장을 믿고 따랐을 때에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선교사의 삶, 기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것이다. 집에 가서도 왕의친구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 훈련생 E

머물던 교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내가 다른 내 또래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과 이렇게 아웃리치를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그리고 내가 구할 때마다 주님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던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에게 진짜여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훈련생 F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겠다

아직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배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장난을 쳐서 그런 것 같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만나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훈련생 G

사소한 것도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어요. 또한 길을 잃지 않고 길을 통해 일을 하셔서 좋았어요. 전도할 때 전도지를 받게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어요. 먹을 것을 구할 때 먹게 하신 것을 경험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 훈련생 H

앞으로 복음을 만날 거예요

"주님이 왕의 친구 학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복음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날 거예요." - 훈련생 I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미디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 하나님 나라의 씨앗

개그우먼 신보라 자매

지난해말 모방송국의 연말연예대상 수상식에서 한 개그우먼의 고백이 화제가 됐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밖에 없습니다."약간은 떠듬거리나 좀처럼 TV에서 볼 수 없었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흥분됐고 궁금했다.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인 복음기도동맹군들이 공유하고 추천한 그녀의 고백을 확인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하게 됐을지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냥 저의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라며 조심스러움과 자신감을 동시에 털어놓던 신보라 자매를 지난 1월초 여의도 KBS홀 앞에서 만났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을 많이 하는데, 연예인이 되면서 주님이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처음 개그우먼이 됐을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데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오늘 인터뷰도 내가 뭔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왔다면 지금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주님 기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웃음)"

– 지난 12월 24일 시상식 때의 소감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나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

"이전부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2009년 시상식에 처음 참여했을 당시 수상은 못했지만 들었던 생각이 '주님 제가 저 자리에서 만약 상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소원했어요. 주님이 들어주셔서 이번에 수상자로 서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돌아보면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늘 주님은 응답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그 고백을 통해 큰 반응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고, 그 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셨나요.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낯설어 하는 분에게는 거부감을, 공감하는 분들에게는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하고 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고백을 했던 것뿐이에요."

– 주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보통 모태신앙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런 혼란기 없이 쭉 믿음생활을 해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기도생활이 시작되었고, 중고등부 때는 교회 안에서 봉사나 여러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 평소 개그우먼이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거제도에 있었을 때는 개그우먼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학교(경희대 신문방송학 전공)를 다녔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중 4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휴학을 하고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앞길에 대한 막막함에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고,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 기도를 통해 주님이 개그우먼의 꿈을 구체화 시켜주셨군요.

"꿈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영역을 다시 보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어요. 또 이 영역이 복음화 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의 동역에 대한 소망함도 주셨어요. 한 3~4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쯤 마침 2010년 4월 모방송 개그 공채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차에 걸친 시험 끝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개그우먼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개그에 대해 뭔가 알고 개그우먼이 된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하나씩 배워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개그우먼을 준비하면서 꿈꾸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전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 기대했던 개그우먼의 삶과 실제 개그우먼으로서의 삶이 다른 점은 없었나요?

"물론 생활에서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도 있고, 사회생활 초보라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대 위에서 일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뻐요.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 무대 위에 서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내려올 때 갖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 남에게 웃음 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여기 있기는 힘들 거예요. 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 스트레스도 물론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보다 이 일이 더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신보라 자매님은 재능있는 개그우먼이기에 앞서 개그계라는 세상 한복판에 서있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수상을 통해 제게는 솔직히 부담이 더 커졌어요. 저를 보는 눈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 할 일도, 잘 섬겨야한다는 부담감도 더 커지게 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보다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짐을 함께 져주겠다는 방송국 작가실 내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작가실은 어떤 곳인가요?

"네. 먼저 작가실은 개그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출연자들이 각 코너별로 회의하고 리허설 하는 장소예요. 이곳에는 함께 일하는 선배님과 작가님들 중에 믿음으로 동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두렵지만 그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요. 이곳은 저희에게 연습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동료 중에 교회에 함께 나가고 싶다는 분들도 몇 분씩 생겼어요. 정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는 부담이죠. 정말 벅차고 흥분돼요."

– 마치 믿음의 공동체 같네요. 그분들과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지요?

"개그맨, 개그우먼 중에 크리스천들이 참 많아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과 신년부터 새벽기도를 하기로 하고 서로 깨워주고 있어요.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며 다 알 순 없지만 정말 이 땅, 개그콘서트 작가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놀라워요. 은혜예요."

– 특별히 개그콘서트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연합모임이 있어요. 영역을 초월해서 가수, 탤런트, 아나운서, 방송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들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생활한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됐어요. 생각해보면 이성미 선배님 같이 이전부터 이미 씨를 뿌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곳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미디어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에 지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열매가 많지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저도 그 씨앗이 되겠죠."

–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시나요. 연예인으로서 믿음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 사실 굉장히 사람들을 웃긴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할 때면 가볍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좀 진지해요. 혹시 저 때문에 주님을 가볍게 보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이야기하다보면 계속 진지할 수만은 없어요. 어떻든 주중에는 방송 준비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주말에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곧 힘이 나요. 또 저와 동일한 고민을 하는 분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눴는데, 어둠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기쁜 일이죠. 어려움은 이번에 느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난 후 주변에서 "보라야. 그 (십자가 피)얘기만 안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하루가 지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지더군요. 기도하기도 힘들 그때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는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다시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 날 이후부터는 걱정 안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진리를 붙들게 되었거든요."

– 끝으로 기도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좇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을 혼란하지 않고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잘되든 혹, 방송에 안 나올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선하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Y.D

기도의 삶

"기도가 저 낙엽처럼 수북이 쌓여서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분의 통치를 믿는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며, 특권이다. 한 개인으로부터 가정, 직장, 교회에서 느헤미야52일 기도에 참여한 기도자들의 후기를 모았다. 〈편집자〉

기도 책자를 통해 묵상하며 기도한 내용들은 모두 십자가, 복음의 비밀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처음에는 열방을 위한 기도로만 생각하고 중보기도를 하러 갔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나를 먼저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이후, 귀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어느새 희미해졌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고, 양보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들뿐이다. 기도 가운데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케 하셨고, 다시 한번 온전하고, 순결하고, 유일한 진리인 십자가를 마음으로 새기게 하셨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기도'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였다는 것도 참 좋고 감사했다.

장혜란

느헤미야52기도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산속에 있는 기도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매우 좋았다. 모두 한 두 시간 자고는 같이 기도를 파수했다.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를 배웠고, 은혜를 받았다. 이번 기도 정보 책자는 우리로 졸 수 없게 했다. 24시간을 기도하며 그간의 삶의 사이클과 많이 달라져서 피곤하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였다. 손녀, 손자가 기도를 도우러 왔다가 돌아간 길에는 느티나무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봤다. 기도가 저 낙엽처럼 수북이 쌓여서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김종찬

1시에 시작하는 기도를 20분 일찍 준비실로 들어왔다. 주인 없는 차갑게 식은 점심 밥상의 주인은 누굴까? 느헤미야로 서신 오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기도실에서 들렸다. 권사님을 저토록 울부짖게 만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갑자기 궁금했다. 시간이 되어 기도실로 들어가 아까 궁금해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북녘동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해 냉소적인 나를 보여주셨다. 사랑도 없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던 가증스런 나를 보게 하셨다. 오늘 작은 기적을 맛보고 돌아간다. 이 일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신미숙

말씀의 샘

복있는 자, 죄인 된 나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

죄인, 죄를 짓는데 최고의 '전문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각인시키기 위해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약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한글이나 영어와는 달리 강조언어(emphatic language)다. 다양한 강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시편 1장1절에 기록된 '죄인'(sinner)이란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 명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죄인'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한다. 강조 형태로 되어 있는 명사다. 이 같은 명사구조는 전문적인 직업(professional job)을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죄를 짓는데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이다.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 분야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죄짓는 일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완벽한 죄의 장아찌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강조 문장으로 기록된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자.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 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욥15:14-16) 사람은 절대 깨끗할 수 없다, 절대 의로울 수 없다, 절대 인간을 믿을 수 없다. 주님만 주목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 한층 더 의미를 강조한 동일 장르의 말씀을 보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욥 22:2-3) 여기에 사용된 유익과 관련된 히브리 단어는 '상업용어'다. 타락한 사람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 수지가 안 맞다. 사람은 절대로 이익이 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커녕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성경이 진리다.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못 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가?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 힘있는 자, 내노라는 자, 지혜를 자랑하는 자, 재벌, 작가, 교수, 온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도 인생 고민하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 지혜자가 아니라 생각이 미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이다. 너 지금 죽는다고 경고의 소리를 내도, 나팔을 불어대도 죄에서 꿈적도 하지를 않고 나오지를 않는다(렘 4:21-22). 이게 악을 행하는데 지각이 있는 우리 패역한 인간 실존이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인된 나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다.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 나(자아)에게로부터 철저하게 도망가 피난처 되신 주님에게로 피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이다.

김명호 목사
(고대근동언어문화연구소 소장)

> 시편 1장 1절의 '죄인'은
> 히브리어로 '하타'
> '죄 짓는데 전문가'
>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
>
> 소위 지혜자라 하는 자들 …
>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해
>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 주님에게로 피하는 자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환난'의 축복과 은혜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시련은 약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 새 생명 가진 자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네. 나를 주님의 발 밑에 데려다 주는 것. 나를 낮추고 그 곳에 있게 하는 것이라네"

환난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도록 몰아낸다.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 기도는 환난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며 환난 중에 위로하며 인내심을 키워 준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그 힘의 참된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성도들을 완전케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해 나가는 일에 있어 가장 유효한 대리자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환난 속에 함께 하신다.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혹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하며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욥의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욥에게 주어진 다음의 찬사를 잊지 않도록 하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2)

환난이 올 때 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진실 되게 보여 주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강한 사람을 겸손케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준다. 비록 그 환난을 제거하지 않는다 해도 성도가 그것을 더 잘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고 있다.

환난 날에 기도를 통해 얻는 위로와 도움과 축복이여!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 91:14-15).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刊

2012년 1월의「느헤미야52기도」참여교회

➪ 5주차 (1월30일-2월4일)
없음. (참여교회 접수 중)

➪ 6주차 (2월6일-11일)
임마누엘교회-느헤미야 김현중 전도사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세대 위한 복음집회, "방학맞아 잇달아 열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집회
주최측, "청소년들 대거 지원해, 합격자 선별이 어려울 정도"

초등학생, 왕의친구학교
중고등학생, 복음수련회, ACCESS 등

새해 벽두부터 10대 청소년들의 폭력과 자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방학기간을 맞아 다음세대들이 십자가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반의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모임 주관기관 역시 선교단체, 개교회 또는 연합모임 등으로 다채롭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완전한 복음 앞에 자신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십자가 복음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기 왕의친구학교는 1월 2일에 시작, 8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수료식을 지난 1월 14일 가졌다.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복음수련회는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4박5일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문광교회(담임 최종덕 목사)에서 진행된다. 현재 접수마감된 이번 제5기학교에는 80명의 훈련생이 참여한다. 이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한의도 전도사는 "원서접수와 전화면접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에도 합격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 모임인 영남지역 원회모(원형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자모임)이 청소년복음수련회측에 요청, 오는 2월중 제1기 영남청소년복음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대안은 복음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역교회에도 확산돼, 개교회 등의 연합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수련회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충신감리교회(담임 배철희 목사)는 중고등부 7명과 지역 교회 청소년,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겨울수련회를 사이판복음교회에서 지난해 말 실시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이판복음교회 권영조 목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선포했다. 집회에 함께 참여한 충신감리교회 이종길 전도사는 "공부를 단지 부모님들의 강요로 여기고 그저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던 자신들의 태도가 온갖 교만과 허영과 탐심으로 얼룩진 모습이었다"며 "회개하는 아이들 모습에 감격했다"고 말했다.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 복음앞에 서도록 하는 교육과정도 있다.

문화행동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는 중1~고3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문화복음학교 액세스(ACCESS)를 2월중 실시한다. 훈련기간은 2월 봄방학 때인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문화복음학교는 훈련생 참여조건으로 불신자 친구 또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를 동행하는 '동행친구'를 동반해야 훈련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참여를 유발하고 쉽게 참석하도록 하게하는 기존 수련회와 달리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이유를, 문화행동 아트리 관계자는 "나 하나에 만족할 복음으로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오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라는 주제로 사이판복음교회에서 진행된 수현회에 참여한 청소년과 섬김이들.

40기 일반복음학교 2월1일까지 접수

훈련기간 2.27~3.3 5박6일간

순회선교단은 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40기 일반 복음학교 참가희망자의 원서를 접수한다. 5박6일간 진행되는 이번 복음학교는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진행된다. 복음학교는 총체적이고 완전한 십자가 복음 앞에 서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4차례의 일반 학교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진행된다.

느헤미야52기도 5번째 기도정보집 발간

복음의 영광, 디아스포라 등 새로운 주제 등장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 '느헤미야52기도'를 위한 기도정보집 5번째판이 발간됐다.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은 긴급한 기도정보 등이 수록된 기도정보 내용의 보완과 최근의 추세를 반영, 디아스포라(이주민)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한 기도정보집 5번째 개정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기도정보집은 복음의 영광, 고난받는 교회, 다음세대, 복음에 반역하는 죄, 디아스포라, 복음과 영적전쟁 등 6권. 각권 6000원이다. 1세트(6권) 구매할 경우는 3만원. 구입문의 ☎ 070-7417-0408~10, 010-4612-0410

"2012 선교한국대회 안산동산교회에서 열려"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주제

1988년 이후 2년마다 개최되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초석이 되고 있는 선교한국대회가 올해 7월 30일부터 8월4일까지(4박5일간) 안산동산교회, 꿈의교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될 이번 대회는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3:15) The Message, Messenger, Community 라는 주제로 성경강해, 저녁집회, 선교현장 사역자의 간증, 전체주제강의, 경배와 찬양, 기도합주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49개의 영역별 주제강의, 멘토 시스템, 기획 전시관, 소그룹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 선교한국 02-563-2468 www.missionkorea.org

선교정보네트워크

태국, 북아프리카, 네팔, 북인도 등 단기선교사 모집

복음과 기도의 증인 대상…
자비량 선교사

모든 선교자원을 총동원해 현장과 연결, 지원하는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지역과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태국 아카부족 = 태국 치앙라이 지역의 아카부족을 대상으로 말씀과 중보기도(느헤미야52기도)와 현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며 특히 부족학생 악기지도를 할 수 있는 분 4명을 모집한다. 사역기간은 약 1년, 공동체 숙식이 제공되며 매월 20만원의 생활비와 개인생활비는 자비량.

▶ 북아프리카 Y국 = 말씀기도 및 현지선교사들의 MK홈스쿨링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사역기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며 언어훈련 포함 생활비는 매월 30만원 필요.

▶ 네팔 카트만두 = 네팔 현지학생(18-22세) 기숙사 케어사역과 기도로 섬기실 분을 구하며 사역기간은 1년. 생활비는 매월 30만원이 필요.

▶ 북인도 = 인도지역을 순회하며 기도사역하실 분 (미전도종족이 가장 많은 북인도지역을 순회하며 기도사역), 2인 이상 팀으로 파송한다고 하며 생활비는 매월 30만원 필요.

문의 :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 070-7417-4156~7, 010-2389-4156, jsministry@hanmail.net

사고(社告)

선교기자.통신원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참여는 주님 오실 길 앞당기는 섬김

복음기도신문은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고 및 기획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할 마음도 있고, 그 나라가 세워져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서도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동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선교기자나 통신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쓰시거나 구술,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느낀 개인의 에세이나 일기
*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본 사진과 글
* 현장 선교사의 기도편지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열방을 정확히 알고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섬김이 됩니다. 이는 또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는 동역이 됩니다.

문의 : 070-7417-0408~10 gnpnews@gnmedia.org

주님이 하셨습니다!

"12월 31일 밤 … 우리는 서울역에서 복음과 함께 보냈습니다"

독서로 충격과 도전, 노숙자들에게 복음과 떡을 함께 떼며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래디컬'이란 책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베풂이 삶 가운데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서울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간단한 영양간식이라도 나누자는 제안을 교회 청년부 지체들에게 나눴습니다.

말을 내뱉고 난 이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됐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린 결과 한 형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예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은 했지만 정확한 대상과 방법을 정하지 못해, 며칠 더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난밤 제안이 왠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어 낙심된 마음이 들었는데 복음기도신문을 통해 다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E.M. 바운즈의 글을 보며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다시 아멘하며 믿음의 발판삼아 나아갔습니다.

28일 수요일 아침. 주님께서 막 2:16-17 말씀을 통해 죄인 및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정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며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때 오늘 있을 회의를 위해 서울역에 한번 답사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의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이 서울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리고, 서울역에 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떨리면서도 마음에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광야 같은 서울역 광장에 막상 들어서니 '에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생각과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과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침에 묵상하게 하신 '식사'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때 한 노숙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도 될까요?"라는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3일간 굶었고 몸이 아프다던 그 분은 다른 일행을 불러도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쯤 주님은 수중에 있던 금액 10만원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20명을 모아주셨습니다. 식사를 위해 제가 대표기도를 했는데 모두가 '아멘'을 하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꽃동네에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는 분, 옆에서 수줍은 듯 끄덕끄덕하며 미소 짓던 아저씨 등.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 주셨다는 것을 증거 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12월 31일 토요일. 정한 날이 되었고, 교회 본당에 모인 우리들은 오후 5시에 전도사님의 말씀증거와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여태껏 노숙자들은 게으르고 도저히 변할 수 없다는 나의 편견들을 주님이 허무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또 주님께서 끝까지 일해 주시도록 간구케 하셨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대접할지 계획이 없었는데 한솥 도시락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장로님이 후원해 주신 15만원으로 도시락 40개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한 해가 마감되는 31일 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는 어두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노숙자들을 찾아 나섰으나 쉽게 만날 순 없었습니다. 계획을 바꾸어 먼저 사람들에게 커피 나눠드리는 일부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분은 성경이 없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늘 성경 중 21장이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에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성경을 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쯤 주님의 은혜로 지난번 만났던 노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면 수백명이 달려들어 싸움이 날 수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우린 광장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도시락을 나눠드렸습니다. 모든 도시락을 배달하고도 모자라 라면을 구입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편의점 아주머니의 격려가 참 힘이 되었습니다. 라면도 다 떨어졌을 때 멀쩡한 외모의 키 큰 한 분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라면을 사드리며 잠시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 3일전 갑자기 노숙생활을 하시게 됐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라면 하나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다며 교회에 꼭 한번 나가겠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곧바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게임 중독으로 노숙생활을 시작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12월 31일 밤 서울역 전체를 뒤 흔드셨고 우리는 그 밤을 복음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롬 10:11)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위한 우리와 다른 교회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성국 형제 (예안교회)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s

『카라바지오의 〈의심하는 도마〉』

"부활마저 의심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고발"

한때 동성애자였던 화가의'나의 복음'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라바지오의 작품이 주는 감동은 말 그대로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르네상스 시기 빈곤과 질병이 창궐하는 하류층에서 태어났고, 화가로 명성을 날리던 로마 체류시기에는 동성애를 탐닉했다. 급기야 다혈질이었던 그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를 살해했으며, 이 일로 로마에서 추방당해 이탈리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그가 그린 성화는 큰 스케일과 대담한 구도, 그리고 카라바지오 특유의 강렬하고 극적인 메시지 전달력을 통해 마치 성경 속의 장면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든다. 카라바지오의 〈의심하는 도마〉 역시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려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것 같은 생생함을 전달한다.

역사적으로 '의심하는 도마'를 주제로 꽤 많은 성화가 그려졌지만, 그 어떤 화가도 검지 손가락으로 예수의 상처를 찌르는 장면을 그리지는 못했다. 그것은 부활마저 의심하는 인간의 죄 된 속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동작이었으며, 폭력과 불의로 얼룩진 카라바지오 자신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기도 했다. 또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친히 붙잡아 자신의 상처로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그림 또한 카라바지오 작품만이 유일하다. 관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그려졌고, 도마는 의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기보다는 성인으로만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의 그림들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담지 못했다.

'도마의 의심'을 이 구도와 이 명암, 그 표정과 동작으로 그려낸 것은 바로 카라바지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카라바지오, 〈의심하는 도마〉, 1601-1602년, 유화, 107x146cm)

이상윤(미술평론가)

■ 후원자 명단
(2012년 1월 3일 ~ 1월 18일. 가나다 순)

△개인
김기석 배용구 유자인 이민자 이상남
이복순 이설옥A 조용현 최명재 무명x2

△교회 및 단체
가스펠휄로쉽교회아둘람공동체
국제선교교회 성도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양덕원감리교회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묵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